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공공미술의 조형적  
특성 연구

-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이명철

2010년 8월

# 제주지역 공공미술의 조형적 특성연구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성 진

이 명 철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 월

이명철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8 월

<국문초록>

## 제주지역 공공미술의 조형적 특성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

이명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지도교수 박성진

공공미술은 미술과 일상을 연결하는 가교이며 그 역할에 따라 공공성의 확보는 물론, 일반인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미술은 사회의 여타 장르나 영역보다도 도시의 시각적 환경에 참여해 미술과 도시, 시민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역할 등으로 인해 공공미술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공공미술의 설치근거인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우리나라에 공공미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마'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기본으로 설치 되어지는 미술영역인 만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인 일반대중과의 소통 문제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제주지역의 공공미술 또한 단순히 작가의 개성과 기호를 반영하는 수동적 형태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다수의 벽화, 조각작품 등을 비롯한 공공미술 작품이 제작·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작품들이 대상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 시민들과의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벽화의 경우는 공공미술의 범주를 벗어나 환경미화의 일부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제작방법과 부주의한 구성들로 인해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도시공간을

바람직한 미적인 환경으로 조성하고 일반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공공미술의 변화과정과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제주도의 공공미술품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관련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현황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 지역(서귀포 지역 일부포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세분화하여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의 긍정적인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제주지역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어 공공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발전적 모색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II. 공공미술의 개념과 변천사 .....	3
1. 공공미술의 개념 .....	3
2. 공공미술의 변화과정 .....	4
3. 공공미술의 기능 .....	7
III. 공공미술제도의 고찰 .....	10
1. 국내의 공공미술 .....	10
2. 국외의 공공미술 .....	13
IV.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의 일반적 경향 .....	16
1. 제주도 지역 문화 환경 .....	16
2. 제주도 공공미술 관련제도 .....	18
3.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 설치현황 .....	20
4.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의 실태 및 조형적 특성 .....	22
V. 결론 .....	52
참고문헌 .....	54
<ABSTRACT> .....	56

## 표목차

<표 1> 공공미술의 개념과 제도적 변화 .....	5
<표 2> 국내 공공미술 제도의 현황과 내용 .....	11
<표 3> 제주시 지역 문화기반 시설현황 .....	17
<표 4>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제도의 현황 및 내용 .....	19
<표 5> 제주도 지역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	20
<표 6> 2007~2009년 제주도 지역 미술 장식품 설치현황 .....	21
<표 7> 제주도 지역 주요 상징 조형물 .....	23
<표 8> 장식성 특성의 조형물 .....	32
<표 9> 주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설치현황 .....	41
<표 10> 탐동 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현황 .....	49

## 그림목차

<그림 1> 넬슨장군 동상, 런던 트라팔가 광장 .....	22
<그림 2> 조형물, 비설 외형모습 .....	24
<그림 3> 변병생 모녀상(母女像) .....	24
<그림 4> 위령제단 전경 .....	25
<그림 5> 시(詩)가 새겨진 비석 .....	25
<그림 6>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전경 .....	26
<그림 7> 기념탑 하단 왼쪽의 부조작품 .....	26
<그림 8> 제주시 상징조형물 .....	27
<그림 9> 부조형물 .....	27
<그림 10> 제주 한라대학교 상징물, 용마상(龍馬像) .....	29
<그림 11> 타임캡슐 표지석 .....	29
<그림 12> 리처드 세라, 기울어진 호 .....	31
<그림 13> 프랑크 스텔라, 아마벨 .....	31
<그림 14> 노형주공, 풍요 .....	33
<그림 15>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섬 .....	33
<그림 16> 제주 연안 여객터미널, 꿈꾸는 바다 .....	33
<그림 17> 뜨란채, 삶의 어울림 .....	33
<그림 18> 롯데마트 화단 위 조형물 .....	34
<그림 19> 하와이 오피스텔 앞 조형물 .....	34
<그림 20> 호텔 네이버 후드 앞 조형물 .....	34
<그림 21> 현대오피스텔 조형물 .....	34
<그림 22> 오름위에 부는 바람 .....	35
<그림 23> 제주 월야 외 2점 .....	35
<그림 24> 제주대학병원, 어머니의 짐 .....	36
<그림 25> 제주대학병원, 휴(休) .....	36
<그림 26> 앤 해밀턴의 무제 퍼포먼스 .....	38
<그림 27> 안토니 고퍼의 찰스턴 시의 구교도소를 위한 습작 .....	38

<그림 28> 케이트 에릭슨, 멜 지글러, 토지 수용권 .....	39
<그림 29> 1차 수선화 아파트 .....	40
<그림 30> 제주시 건입동에 설치된 조형물 .....	40
<그림 31> 제주 남초등학교 타일작품 .....	40
<그림 32> ‘길’을 형상화한 터미널 전경 .....	43
<그림 33> 제주시외버스터미널 후경 .....	43
<그림 34> 조형물, 할망과 손주 .....	43
<그림 35> 조형물, 길에서 만나다 .....	43
<그림 36> 시외버스터미널 내부 .....	44
<그림 37> 터미널 내부의 소형 조형물 .....	44
<그림 38> 두명이 쉼광 .....	46
<그림 39> 두명이 쉼광 벽화 .....	46
<그림 40> 오래된 장소를 주제로 한 벽화 I .....	46
<그림 41> 오래된 장소를 주제로 한 벽화 II .....	46
<그림 42> 녹색 공간을 주제로 한 벽화 I .....	47
<그림 43> 녹색 공간을 주제로 한 벽화 II .....	47
<그림 44> 탐동 전경 .....	48
<그림 45> 부조 조형물 .....	48
<그림 46> 해녀 조형물 .....	50
<그림 47> 돌고래 조형물 .....	50
<그림 48> 보수작업 중인 구간 .....	50
<그림 49> 보수작업 중인 파손된 구간 .....	50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에서 공공미술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 이면에는 환경오염을 비롯한 교통 혼잡,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는 기능적인 면과 동시에 정서적,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팽창과정에서 도시미관의 심미적인 측면은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인간의 정신적 빈곤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인간성 소외라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은 필연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 문화의 다양성, 공공장소의 기능과 권력의 작용, 비전문적인 거주자들에 대한 전문 인력의 역할 등과 관련된 이슈로 확장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슈들은 공공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디자인, 도시계획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장소가 인간에게 미치는 의미는 철학자인 “블로우(Otto Bollow)가 밝힌바, 세계 내에서 단단한 기반을 확보하고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닌, 자기가 속해있고 그 속에서 집에 있는 듯 한 느낌을 갖는 하나의 장소를 찾는 것, 밀어닥치는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의 영역을 소유화하고 자기의 바탕적 질서를 이룩하는 것,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창조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sup>1)</sup>라고 하였다.

쾌적한 주거공간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환경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을 전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환경미술, 대지미술이 예술의 한 형식으로 확산되었다. 가장 활성화된 형태로는 대중을 위한 공개된 장소 또는 건축물의 대형조각에서부터 벽화, 거리포장 등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을 들 수 있다.

1) 이규호(1968), 「현대철학의 전망」, 범문사, p. 24.

이러한 경향은 제주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논의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공공미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환경과 미술의 관계, 그리고 공간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 작품의 기능 및 유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의 경향을 밝히고 현대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공미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밝히며,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였다.

II장에서는 공공미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III장에서는 공공미술의 설치근거가 되는 미술장식품 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을 고찰하여 공공미술이 제도적으로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 설치현황을 제주도의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으로 정리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미술 작품을 상징성, 장식성, 공공성 등으로 분류한 후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V장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주지역 공공미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도는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전국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공공성의 일부가 관광객들에게 할애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만 공공미술 분야가 제주지역만의 독자성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공공미술의 개념과 변천사

### 1. 공공미술의 개념

공공미술(Public Art)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의미한다. 공공장소 속의 미술,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더 좁은 의미의 공공미술은 대지 미술가인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의 말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site specific work)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 개방적이나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 내의 공공장소를 예술적 디자인으로 변형시켜, 그 장소를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사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예술작품을 일컫는다. 나아가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동기여부와 현대 미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실직하거나 미술 외의 일에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전업 작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주요목표의 하나다.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이 도시이고 그 형식은 조각, 벽화, 디자인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sup>2)</sup>.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영국의 미술행정가인 “존 윌렛(John Willett)이 1967년 자신의 저서 ‘도시속의 미술 『Art In a City』’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렛은 혁명, 경제부흥, 도덕적 절제 등 사회적 필요에 부응한 예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예술원에 재직하며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예술형태와 그것을 수용하는 관객들을 찾으려 노력한 인물이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정서에 맞는 미술개념으로 공공미술을 고안한 것이다.”<sup>3)</sup> 그는 미술이 사회에 유익하며, 로테르담에 있는 자드킨(Ossip Zadkine)의 파괴된 도시, 앤트워프에 있는 미들하임 조각 공원처럼 공공적 자원은 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행위로 보았다. 윌렛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향유되던 예술

2) Malcolm Miles(2000),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p.20.

3) 상계서, p.153.

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해 대중들이 수용할 수 있는 미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와 같이 공공미술은 기존의 전시장 속에 한정되어 있던 미술을 전시장 바깥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site specific work)’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소 일반(site-general art)’이라고 할 수도 있다.”<sup>4)</sup>

대부분의 작품은 도시에 설치되므로 공공미술은 설치공간을 예술적 환경으로 변형시켜 그 장소를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이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 2. 공공미술의 변화과정

근대 이전에는 건축에 회화와 조각이 장식개념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공미술이라는 구체적 개념은 성립되지 않지만 동상, 기념탑, 분수, 벽화 등 수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에 국제주의 건축양식이 도입된 후 회화와 조각이 건축에서 독립된 장르의 길을 가게 되면서 공공미술의 개념이 등장했다.

공공 미술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은 1951년 프랑스에서 였다. 건축비의 1%를 환경조형물에 쓸 것을 요점으로 하는 퍼센트 법(Percent for Art Schem)<sup>5)</sup>이 제정된 후 이 방법은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수용되었다. 미국에서 진행된 공공미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둘째로,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Art)’, 셋째로, ‘도시계획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넷째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er Public art)’ 등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표 1>은

4) 박삼철 역(2000), 전계서, p. 240.

5) 이 법은 1934년 미국에서 실직미술가를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미술가에게 벽화나 조각을 의뢰하기 위해 처음 마련되어 프랑스에서는 1951년에, 우리나라에는 1982년에 도입되었다.

그 변화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공공미술의 개념과 제도적 변화

구 분	특 징
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작품을 통한 정부건물의 미적가치 제고</li> <li>- 프랑스 1%법(1951년), 미국 연방정부 공공시설청(CSA)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1963년)</li> <li>- 작품경향 : 순수미술 위주</li> </ul>
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 공간 활성화</li> <li>- 순수 미술 위주에서 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li> <li>- 미국국립예술진흥기금(NEA) : 공공장소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7년)을 만들. 자치단체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 법을 근거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li> </ul>
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li> <li>- 도시 디자인팀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 됨.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 종합계획(public art master plan)수립.</li> <li>- 기금제(pooling system)가 도입됨.</li> </ul>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er Public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li> <li>-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는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li> </ul>

자료 : 양현미(2005), 효과적인 공공미술 실행방안,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 개선 방향 심포지엄」, 문화관광부, p.72.

첫째,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은 프랑스의 1%법이나 미국의 연방

정부 공공시설청(CSA)이 ‘건축물 속의 미술’ 프로그램(1963년)을 통해 정책적으로 장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시기의 작품들은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순수미술작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으로 스튜디오의 작품을 크기만 키워 설치하여 ‘플립아트(plop art)<sup>6)</sup>’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둘째,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로 공원, 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 공간을 활성화면서 순수미술작품 경향에서 벗어나 공간적 특성을 획득함으로써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되고, 미술과 일상을 결합하는 예술형식을 갖추게 되면서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되는 미술품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다.

셋째, ‘도시계획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로, “이 시기에 와서는 공공미술을 통한 인간화와 네트워크화를 정착시키고 공공미술 종합계획(public art master plan)의 수립, 기금제(pooling system) 도입, 도시디자인팀에 미술가의 참여가 제도화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프랑스의 라 데팡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미국의 필라델피아,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등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sup>7)</sup> 또한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 시설물이 설치되고 문화시설이 활성화 되어 공공미술의 영역이 확장되는 전기가 되었다.

넷째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이다. 미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확대와 시민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미국의 아티스트이자 공공미술 비평가인 수잔 레이시(Suzanne Lacy)에 따르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할 수 있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주제, 매체 그리고 제작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공공미술과 차이를 갖는다. 주제는 대개 미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결정하며 미술가의 예술적 관심이나 도시 미관상의 관심보다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이슈로 결정된다.”<sup>8)</sup> 매체는 옥외조각이나 벽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media art) 같은 실험적이고 비전통

6) plop는 텀벙하고 물속에 물건을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건축적으로 미리 짜인 공간에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크기만 늘려 제작하여 야외로 들고 나와 설치하는 미술을 비꼬는 용어이다.

7) 김영호 편(1996), 「도시공간을 위한 환경 미술을 찾아서」, 가나아트, 9, p.62.

8) 양현미(2005),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 개선 방향 심포지엄」, 문화관광부, p.74.

적인 매체도 자주 사용된다.

이처럼 도입시기와 세 번째 시기까지의 전통적인 공공미술이 공공의 개념을 장소와 관련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일반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면, 네 번째 시기 이후의 ‘새로운 장소의 공공미술’은 공간을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간주하여 관람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차이가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넓게 하여 개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작품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게 하였다. 위의 <표 1>에서 보여주는 공공미술의 변화과정이 발전의 단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장소 속의 순수미술’에서 ‘공공장소 속의 공동체 미술’로 지향점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 3. 공공미술의 기능

공공미술의 개념은 ‘공공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확대·발전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공미술이 가지는 기능 또한 조금씩 변화한다. 사회와의 관계, 소통하는 대상 등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미술의 역할이나 기능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sup>9)</sup>는 ‘공공미술에 있어서 공간과의 상호 작용은 미술작품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공간과의 상호 영향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도시 공간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작품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배려되어야 함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이해되고 수용된다.

첫째, ‘미적 기능’이다. “현대적이고 차가운 도시공간에 다양한 색채나 형태의 변화를 통해 미적, 인간적 요소를 부여하며 도시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서적인 활력소를 제공한다. 무미건조한 벽이나 빈터에 공공미술품이

9)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 : 스위스의 심리학자. 논리적 사고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식론의 제반문제를 추구하였다.

들어감으로써 시각적 액센트가 되고, 보는 이에게 심리적, 정신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sup>10)</sup>

둘째, ‘랜드마크(landmark)’의 기능이다. 일상 생활환경의 요소로서 시각적·심리적 액센트의 역할을 하며, 복잡한 도시에 하나의 점점으로서의 장소성을 획득해 도시민에게 방향감을 제공한다.

셋째, ‘공간조절의 기능’이다. “공공미술품 설치로 인해 도시에 시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들이 형성하는 환경 속에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인 형태의 건축물들이 형성하는 환경 속에서 예술적인 조형물이 입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습관화 된 시각의 피로와 권태를 덜어주고 심리적인 위안을 준다. 수직적인 대형건물이 있는 가운데 곡선적인 조형물이 설치되었다면 그것은 시각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심리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sup>11)</sup>

넷째, ‘공공예술의 기능’이다. 도시공간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공공의 접촉이 활발해져 해당 지역 공동체나 단체의 고유한 성격을 전달하게 된다. 이는 단조로운 도시 공간에 주민과 그 공간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줌으로써 도시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한다.

다섯째, ‘실용성의 기능’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서 물리적 접촉이 가능하게 한다. 물을 뿜어내는 분수, 조명을 통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것, 앉기 위한 것 등의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 도시 가구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기능적 역할은 그 부수적 형태인 조경과 더불어 삭막한 도시공간에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전해 줄뿐 아니라 생활용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공공미술은 도시를 인간의 삶을 위한 장소로서 바라보고 그 주된 목적을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의 향상에 두고 있다. 도시설계는 특정지역의 도시공간을 형성함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완공 관리까지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공공미술을 포

10) 조대현(2000), “도시와 환경조각의 조형적 관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 교육대학원, pp.4~5.

11) 이윤주(1992), “환경 미술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pp.17~19.

함하고 있다. 공공미술작품이 일정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획득한다는 일반적인 전제는 1988년 미국의 유명한 미술 비평가인 패트리샤 필립스(Patricia Philips)가 <아트포럼>에 ‘고장 : 공공미술기계’를 기고하기까지는 이의 없이 명백한 것이었다. 그는 ‘공공(public)’이란 개념이 난해하고 가변적이라 지적하면서 “공공성은 물리적이거나 환경적, 건축적인 측면보다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sup>12)</sup>고 주장했다. 이는 미술이 공공의 것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중적으로 노출된 예술작품이 아니라 미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매개 기능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상처를 담아내고 이를 재활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을 말한 것이다.

공공미술은 이제 특정장소를 외형적으로 장식하는 ‘공공장소 속에 있는 미술’ 그 이상이어야 하며, 관람자는 한 걸음 나아가 작품의 내용과 맥락에 자연스럽게 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대중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 영역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을 구성하는 매개가 되어야 공공의 미술로서 그 기능과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12) Malcolm Miles, 박삼철 역(2000),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p.32.

### Ⅲ. 공공미술제도의 고찰

#### 1. 국내의 공공미술제도

국내의 공공미술 관련제도는 도시 문화 환경과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일정규모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비의 일정비용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서구의 '예술을 위한 퍼센트(Percent for art sceldinace)법'을 모델로 하여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권장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4년 서울시가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의무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공공미술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문예 진흥이라는 입법취지보다 올림픽을 앞둔 도시경관 미화차원의 정부당국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도시환경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기 보다는 국제차원의 행사를 위한 가시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1%법 시행령은 급조된 가시적, 장식성 덕택에 그 폐해를 인정하며 '미술장식품 설치기준개선사항'을 내놓게 된다. “93년 조치의 핵심사항은 85년 의무사항이던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조정하고 미술장식품 심의시기를 앞당겨 착공신고전, 즉 건축허가 신청 시 미술장식품을 설치 계획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공검사에 임박해서 심의 일정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외국의 경우처럼 계획적 공공미술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1995년 건축법에 미술장식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장식 조례제정이 일반화 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정되거나 보완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설치기준을 1/100이상에서 1/100이하로 완화 하였고,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문화예술진흥

13) 안인기 편(1996), 「환경조형물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미술, p.57.

기금의 모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예술의 전당을 동법상의 특수법인으로 흡수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의 밀집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2002년에는 문화구 지정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지구 안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2003년에는 문화산업의 정의 규정에 기획 분야를 포함시켜 수준 높은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들의 향수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현장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 도서, 문화진흥상품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 있었다.”<sup>14)</sup>

이후에도 국내의 미술장식제도는 여러 번의 권장사항, 의무사항, 축소, 등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표 2>는 2008년도 기준 국내 공공미술 제도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2 > 국내 공공미술 제도의 현황과 내용

법률 명	주 요 내 용
문화예술진흥법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면적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li> <li>- 해당건축물 : ①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②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④판매시설, ⑤운수시설, ⑥의료시설중 병원, ⑦업무시설, ⑧숙박 시설, ⑨위락시설, ⑩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li> <li>- 작품의 설치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수도권 정비계획 법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li> </ul>

14) 문화관광체육부(2007), 문화정책백서, p.42.

	<p>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95/100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08.2.29&gt;</p> <p>미술장식종류 :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물</li> <li>▶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li> </ul>
<p>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li> <li>-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li> </ul>
<p>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li> <li>- 심의항목 : ①미술시장의 가격 ②미술장식의 예술성 ③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④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⑤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li> <li>-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공보에 공고.</li> <li>-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li> </ul>
<p>제1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함</li> </ul>

자료: 문화관광체육부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위와 같은 공공미술 제도의 현황과 내용은 국내의 공공미술이 ‘장소속의 미술 혹은 건축 속의 미술’의 단계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폭넓은 논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공미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도시 속 삶과 친화적인 성격의 미술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국외의 공공미술

외국의 경우 대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중심의 공공프로젝트를 구축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활성화란 구체적 계획 아래 공공미술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본 항에서는 국내 공공미술제도의 모태가 되는 1% 예술지원정책을 시행하는 프랑스와 미국의 공공미술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 1) 프랑스

프랑스 공공미술의 특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공미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의무 대상의 건축물 역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위주로 하고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조형예술자문관을 두고 있다.

공공미술 진흥정책에 따른 제도는, “1936년에 법안을 마련하여 1951년 시행된 ‘건축물 1%법과, 1983년 창설된 공공미술 주문기금(Fonds daide ala Commande publique)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공공미술 주문체계를 갖고 있다.”<sup>15)</sup>

건축물 1%법은 프랑스 정부가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할 경우 건축예산의 1%를 현대미술 작품을 구입·주문해야 한다는 법으로 현재 15개 부처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법안의 최종목표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술과 건

15) 김성원 편(1997), 『프랑스의 공공미술 지원책』, 가나아트, p.68.

축물 사이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여 예술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충하고, 아울러 현대 미술의 영구적인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서 시작되었다.

‘공공미술 주문기금’<sup>16)</sup>의 경우에는 1983년 시작되어 문화부 예술 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주문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 행정기관과 함께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공조형물에 대한 제작을 실행한다. 1983년부터 15년 동안 총 3천 4백만 프랑(5백40억 원)의 예산으로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7백 6십여 점에 달하는 공공미술품은 현대미술분야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이루고 있다.

신도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조형물 설치계획을 수립, 현대적인 건축과 함께 조형물을 세운 파리외곽 ‘라 데팡스(la defense)’의 경우가 공공미술의 구체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프랑스는 체계적인 공공미술 제도를 확립하여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 2) 미국

미국의 공공미술 제도는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적용된 뉴딜 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이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는 미술가들의 공품을 알게 되고 새롭게 건설된 정부기관 건물들, 우체국, 법원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과 조각들을 미술가들에게 의뢰하였다. 뉴딜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미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수 만개의 대중예술품이 미국 문화의 틀에 자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 이후 경제공황기로 인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된 노동진흥성(Work Progress Administration)의 ‘연방 예술프로젝트’와 재무부 산하의 순수예술과(Section in fine Art)에서 ‘공공미술의 미적향상’을 위해 이루어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건축비의 일정비율(1%) 금액 할당과 연방정부 예술지원금의 보조를 통해 작품을 의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sup>17)</sup>

16) 1983년 조형예술국립기구(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내에 공공주문기금을 설립한 것은 현대 예술분야의 전문화된 기구들 밖에도 작품들을 설치함으로써 생활환경의 풍요와 국가 문화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17) 김민영(2004), “공공미술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p.24.

그러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고, 1960년대에 와서야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의 제도는 공공시설청의 ‘건축 속의 미술(1963)’<sup>18)</sup>과 연방예술진흥기금의 ‘공공장소 속의 미술(196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두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다.

공공시설청이 주관 시행하고 있는 ‘건축 속의 미술(AiA)’은 연방건물의 미적향상을 위해 연방건물 건축비의 0.5%를 미술에 할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작 및 설치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방예술기금의 ‘공공장소 속의 미술’에서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일정한 심의를 거쳐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sup>19)</sup>방식으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 공공미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뉴욕의 경우 낙서와 범죄가 동일시되던 지하철을, 뉴욕 교통국은 ‘1% 예술정책’에 따라 역사 개선사업 비용의 1%를 배당했고, 1985년에는 시각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며 이는 뉴욕시 문화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18) AiA 프로그램 팀은 대통령의 Ad Hoc 위원회의 추천으로 1963년 설립되었다.

19) 매칭그랜트 방식(Matching Grant) : 주변 환경(특히 색채, 외관)과의 조화를 전제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

## IV. 제주시 지역 공공미술의 일반적 경향

### 1. 제주시 지역 문화 환경

제주도는 2007년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외국의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보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아울러 제주도의 중심도시인 제주시의 도시환경 개선은 보다 체계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재의 “濟州市(濟州市)는 2005년 7월 1일 주민투표로 단일 광역자치안을 확정하고 2006년 1월11일 법률 제7847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같은해 7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시인 濟州市(濟州市와 北齊州郡 통합)로 4읍, 3면, 19개동, 96개리, 414개 통으로 출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에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20)</sup>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도시인 제주시는 제주도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은 한라산 정상을 사이에 두고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접하고 있다. 지세는 한라산 북사면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모양이며, 한반도와 마주 대하는 한라산 북사면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과 해운을 연결하여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의 내용은 면적 977km<sup>2</sup>(제주도 전체면적의 52.9%)이다. 행정구역은 4읍, 3면, 19동, 414통, 96리, 3968 반이고, 행정조직은 6국, 3보건소, 1대, 27실과 5사무소 1팀, 4읍, 3면, 19동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정규모는 7,166억 원이다. 기후 조건은 연평균기온 16.5℃, 강수량은 1,704.1mm 이다. 인구는 2008년 현재 408,364 명”<sup>21)</sup> 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오랜 역사 안에 조성되어진 역사

20) 제주시(2008), 제주시 통계연보, p.34.

21) 제주특별자치도(2009), 「20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 스포츠 현황」, pp.83~87.

적, 전통적, 상징적 명소가 되는 주요 사적지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보물로는 “탐라 순력도(국가지정 보물 제652-6호)가 유명하며, 주요 사적지로는 삼성혈(사적 제1345호), 오현단(제주도기념물 제1호), 제주성지(제주도기념물 제3호), 제주 목관아지(사적 제380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사적 제396호), 제주향교(유형문화재 제2호)등이 있으며, 민속자료로는 제주도 내왓당무신도(중요민속자료 제240호), 제주 애월말방아(중요민속자료 제32호)”<sup>22)</sup>등이 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유·무형의 전통문화재를 상당 수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의 여건은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관광자원으로서 시민들에게는 물론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적 본위로 인식되는 측면에서 보면, 자족기능과 문화욕구 충족을 해소해 줄 쾌적한 도시환경 안에서의 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만족치 못하여 이의 적극적인 확대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3>은 제주시 지역 문화기반 시설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제주시 지역 문화기반 시설현황

구 분	내 역	관 수	비 고
공공도서관	지자체	6	
	교육청	3	
	개 인	1	
	계	10	
	국립박물관	1	
	교육박물관	1	
	공립박물관	4	
박물관 미술관	공립미술관	1	
	사립박물관	3	
	사립미술관	4	
	전시관, 자료관	3	
	식물원	3	
	소계	20	

22) 제주특별자치도(2009), 「20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 스포츠 현황」, pp.13~25.

계	30		
기타 문화시설	공연시설	22	공연장 16, 영화관 6
	문예회관	1	
	문화의집	10	
	문화원	3	
	문화학교	8	
	문고	94	
	계	138	
	총계	168	

자료: 제주시(2008), 제주시 통계연보, pp.492~501.

## 2. 제주도 공공미술 관련제도

도시환경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시각적 이미지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와 경제가 관련하여 지역의 독창성을 발휘할 때 문화 환경은 더욱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문화 환경은 육지부와 서구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와 대립함으로써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은 지역 환경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전반에 창조적인 변화가 주어질 때 지역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점은 공공미술의 전개에서도 매우 당연한 요건이지만 관련제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미술장식의 심의요건을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은 특정 요소에 치우쳐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공미술의 심의요건 개선방향은 도시 공간계획의 범주에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제주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 유산까지 보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표 4>와 같은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지방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표 4>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 제도의 현황 및 내용

법률 명	주요 내용
제23조 (미술장식설치의무)	-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이하 “건축주라 라 한다)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① 영 제12조제1항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에 해당되는 금액 -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로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26조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권고)	-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28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 영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9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사진·도시계획 분야 등 미술장식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도의회의원, 관련 도민단체 회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자료: 제주도 법무정보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위와 같은 미술장식품 관련제도는 오늘날 공공미술에 요구되는 공공성, 기능성, 역사성 등을 모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 3. 제주시 지역 공공미술 설치현황

문헌 조사를 위해 제주도청 문화정책과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2006년도까지의 자료는 공공미술품의 설치장소, 작품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가 미비 하였다. <표 5>는 2007년 이전 설치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제주도 지역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연도	개소(건축물 수)	비고
2000년 이전	7(제주4, 서귀3)	
2001	1(제주1)	
2002	4(제주2, 북군2)	
2003	3(제주2, 북군1)	
2004	3(제주2, 북군1)	
2005	7(제주4, 서귀1, 북군2)	
2006	6(제주5, 서귀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연구를 위한 문헌조사 결과 20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작품들은 그 수가 매우 적지만 2002년도 이후에는 설치 작품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건축물 미술장식법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물들의 증가와 공공미술품의 필요성을 인식한 관련기관이 공모제를 통한 공공미술품 설치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학교 교문이나 제주시청사 상징조형물과 같은 대형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나 민간 건물앞에 설치되어 공간을 미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장식적 기능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다음 <표 6> 은 2007년에서 2009년도 제주도 지역 공공미술 설치 현황이다.

<표 6> 2007년~2009년 제주도 지역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설치 년도	설치 장소	건축주 법인명	설치작품 수
2007	제주시 용담2동	(주)정일주택	1
	제주시 연동	한라병원	2
	구좌읍 김녕리 산 157	(주)에니스	15
2008	한림읍 대림리 1889	대한주택공사	2
	서귀포시 동홍동 1575	대한주택공사	1
	성산읍 고성리 127	보광제주	17
2009	제주시 아라1동 1752-3외 8필지	제주대학교병원	28
	안덕면 상천리 800	(주)핀크스	1
	애월읍고성리	대한주택공사	1
계			6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

본 연구는 제주도청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을 토대로 하여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미술작품은 미술관련 종사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여 자료에 추가하였다.

제주시 지역(서귀포 지역 일부 포함)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살펴보면 총 116점의 미술장식품 설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입체조형물(조각 작품 포함) 이 62점으로 가장 많았고 회화가 46점, 공공미술프로젝트 8개소로 집계 됐다. 제주시의 미술장식품은 입체 조형물이 다른 부분보다 다소 많았으며 회화 및 평면 작품도 상당수가 설치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4. 제주시 지역 공공미술의 실태 및 조형적 특성

##### 1) 상징성

“공공미술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서구 산업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건립되기 시작한 기념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 기념조형물은 공공미술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공공성과 미술 사이의 갈등과 혼란, 새로운 가치의 모색이 고스란히 새겨져있다.”<sup>23)</sup>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기념조형물이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목적과 공공교육, 공공계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많은 양이 건립 되



<그림 4> 넬슨장군 동상, 런던 트라팔가 광장

었다. 이 시기의 기념조형물은 초상화법과 자연주의 화법을 통해 작품의 해석이 아닌 인식에 초점을 두며 조형물 자체의 이념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기념비 조각은 기둥, 빌딩, 조각상이나 한 장소를 기념하는 특정인물 혹은 사건, 사상을 기념하는 조각의 형태로 거대한 크기를 기본구조로 하여 누구나가 잘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림 1>은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넬슨장군의 동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념조형물이다. 이러한 기념조형물의 재현적 속성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일반대중의 공동체 의식을 표방하는 쪽으로 변화한다. 즉,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지역적, 토속적인 것들을 집약시키며 통합된 주제를 부여하는 상징성을 담아내는 역할이다.

제주지역 또한 기념비적 성격의 공공미술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교훈적, 상징적 요소를 주제로 하여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며, 단순한 미적 기능을 넘어 제주의 문화, 역사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시 동부지역과 제주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규모 면적에 시설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23) 박삼철(2005),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p.98.

분명한 관리 주체가 정해져 있었다.

<표 7>은 제주시 지역에 분포한 상징성을 내재한 조형물들을 설치 장소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 7> 제주시 지역 주요 상징조형물

설치 장소	작가명	작품명
제주 4·3 평화공원	고길천 외 3명	위령제단
		비설(변병생모녀상)
제주 해녀박물관	문기선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탑
제주 항일기념관	문기선	애국선열 기념탑
제주시청	박도춘	탄생- 꿈과 신화의 땅
제주 지방해운항만청	이일영	상징탑
제주 교육대학교	임춘배	제주 교육대학교 교문
제주 한라대학교	문기선	한라 용마상 및 타임캡슐
전쟁기념관	임춘배	강승우 소위상

위에 기재된 곳 중 대표적으로 제주 4·3평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 시청사 등에 설치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사례 1. 제주 4·3 평화 공원

4·3 평화공원은 1948년에 발생한 4·3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공공미술품 또한 4·3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공원 내 기념관에는 관련유물과 평면작품, 부조작품, 입체작품 등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된 작품을 위주로 현장 조사를 진행 하였다. 4·3 공원 내에 설치된 작품들은 작가개인에 의한 제작이 아닌 여러 명이 참여하여 공동제작·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장소가 가지는 특성상 공공미술 작품의 주제 또한 무겁고 애절하다. 모두 4명의 작가가 참여한 ‘변병생 모녀상’ 과 ‘위령제단’ 두 작품을 선정하여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작품 1. 비설(변병생 모녀상)



<그림 2> 조형물, 비설 외형모습



<그림 3> 변병생 모녀상

작가명	강문석, 고길천, 이원우, 정용성
작품재료	화강석, 현무암, 오석, 브론즈
작품크기	1800×1720×200cm
제작시기	2007년
작품설명	<p>봉개동 지역에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벌어지던 1946년 1월 6일 변병생(당시25세) 과 그의 두 살배기 딸은 거친오름 북동쪽 지역에서 토벌대에게 쫓겨 피신도중 토벌대가 쏜 총에 맞아 죽었다. 후일 행인에 의해 눈 더미 속에서 이 모녀의 시신이 발견 되었다. 이 모녀상은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이 두 생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비설’은 쌓여 있다가 거센 바람에 휘날리는 눈을 뜻한다. 제주 현무암으로 돌담을 원형으로 쌓고 변병생 모녀상은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표현 방법은 매우 사실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p>

작품. 2 위령제단(귀천)

위령제단은 공원 중앙의 상단부에 설치 되어있어 먼 거리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념비적 조형물로서는 그 크기가 다소 작아 보였다.



<그림 4> 위령제단 전경



<그림 5> 시(詩)가 새겨진 비석

작가명	강문석, 고길천, 이원우, 정용성
작품 재료	화강석, 오석
작품 크기	100×75×220cm(5개)
제작 시기	2007년
작품설명	4·3은 그 동안 진상규명 회복운동의 결과, 발발한지 반세기가 넘어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무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작 되었다. 희생자들을 세대별 의미를 담은 다섯 벌의 수의(囚衣)로 표현함으로써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영혼들이 이제라도 평안히 저승길로 가시라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 성인 남·여, 어린이 남·여, 그리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태아가 저승으로 갈 때 입혀 줄 수의를 평면으로 형상화 했다. 다섯 개의 조형물 중앙에는 양 중해 씨의 혜원의 시(詩)를 새겨 넣어 그 영혼들을 위무했다. 다섯 개의 기둥은 전통적인 제사 봉행 시 쓰이던 병풍에 착안하여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대규모의 작품은 아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경건함,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수직, 수평구조로 제작 되었다.
--	--

작품3.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탑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탑은 제주해녀 박물관 외부에 설치된 작품으로 도로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국가 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림 9>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탑 전경



<그림 7> 하단 왼쪽의 부조작품

작가명	문기선
작품 재료	화강석, 브론즈
작품 크기	400×400×1400cm
제작 시기	1996년
작품 설명	<p>제주 항일운동 기념탑은 1931년 6월부터 야학에서 민족 의식을 키워온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등 구좌읍 성산읍, 우도면 해녀들이 일제의 극심한 수탈에 항거, 1932년 1월까지 연인원 1만 7천 여명에 이르는 여성 주도의 항일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설치되었다.</p> <p>해녀 투쟁은 단순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민족 교육에 바탕을 둔 항일 운동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항일</p>

	<p>운동 가운데 독보적인 여성운동과 어민투쟁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 <p>이 운동을 주도했던 세명의 여성을 부각시켜 조형물의 상징성을 표현하였으며 좌대 모양은 제주도의 전통어선인 덕판배의 모습으로 조형화시켰다. 덕판배 좌측에는 야학광경, 우측에는 물질광경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p>
--	--

#### 작품 4. 제주시 상징조형물

제주시가 시로 탄생한지 반세기를 맞아 이를 기념하고 후세의 21세기 문화유산으로 전승할 수 있는 제주의 고유 이미지 반영과 제주시의 비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형상이 담긴 미래지향적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여, 제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2006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설치하였다. 작품은 각기 다른 형상의 조형물들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었다.



<그림 8> 제주시 상징물 전경



<그림 9> 부조형물

작가명	박도춘
작품재료	화강석, 브론즈
제작시기	2006년

<p>작품크기</p>	<p>전체규모: 1500×915cm</p> <p>① 주조형물(역사-만남) : 400×230×840cm</p> <p>② 부조형물(현재-풍요) : 300×102×200cm</p> <p>③ 부조형물(미래-희망) : 320×702×500cm</p> <p>④ 부조형물(부조) : 570×100×270cm</p> <p>⑤ 부조형물 : 300×40×180cm</p>
<p>작품설명</p>	<p>제주시의 역사와 희망찬 미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현대적 감각의 예술적 조형성을 추구하였으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주도 탄생 신화인 삼신인을 기본적인 모티브로 하여 구상적인 형상으로 상징화 하였다. 영구적인 재료인 브론즈와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구조적인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p> <p>작품구성은 제주시 50주년을 기념하는 커다란 원판을 단계적으로 쌓아올리고, 그 위에 제주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상들과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조형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3개의 남, 녀상은 삼신인과 벽랑국 공주를 상징하며 부조 부분은 제주의 오름을 떠올리게 한다.</p> <p>명판에는 제주시 연혁, 건기 등이 기재되어 향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제주시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p> <p>화강석의 선명한 음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면과 선을 강조한 작품으로 양감보다는 선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함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조형물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 되었으며 광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p> <p>높이 9미터 이상의 대형작품으로 먼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지만,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p>

작품 5. 제주 한라대학 용마상 및 타임캡슐

제주 한라대학 용마상 및 타임캡슐은 1999년 제주한라대학 개교 30주년을 맞아 펼쳐는 기념사업 중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비전화된 미래라는 주제 하에 추진된 ‘제주 한라대학교 개교 30주년기념 타임캡슐 사업’은 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자는 한라대학의 꿈과 희망, 다짐과 비전을 타임캡슐에 담



<그림 10> 제주 한라대학교 상징물, 용마상



<그림 11> 타임캡슐 표지석

아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 추진되었다.”<sup>24)</sup>

타임캡슐은 한 시대의 문화, 산업, 사회적 유산을 특수용기 속에 넣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후손들이 이를 개봉하여 선대들의 지혜와 삶을 확인하게 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문화유산의 전수 방법이다. 타임캡슐은 용마상의 좌대부분에 설치되어 조형물로서의 외관을 구축하였다.

작가명	문기선
작품재료	한라용마상 : 브론즈 타임캡슐구조 : 외피(PVC, 스티로폼단열재), 타임캡슐 본체(STS 316S), 수장품 용기 등으로 구성된 4중 구조
작품크기	한라용마상 : 1200×1010×600cm(좌대포함) 타임캡슐: 120×80×130cm
제작시기	1999년

24) 제주한라대학교 출판부(1999), 「제주한라대학 타임캡슐」, p.25.

작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용마상 : 제주한라 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별도의 광장(4500×5000cm)을 조성한 후 중앙에 설치되었다.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지혜롭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당당한 승리가 되기를 염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li> <li>- 타임캡슐 : 용마상의 좌대 부분에 설치하였다.</li> <li>- 타임캡슐 주요 수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불상, 비전 화된 미래금판, 능엄신주</li> <li>② 학교법인, 행정부서,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학과, 학생회, 교육관련 도서 및 교직원 기증품 등 총 476점</li> <li>③ 실물 및 원본, 사진, CD형태로 수장</li> </ul> </li> </ul>
-------	--

위에서 살펴본 상징성을 기본으로 한 공공미술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기념비적 성격에서 점차 도시나 학교, 기업 등의 상징성을 담아내는 형태로 다변화 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 2) 장식성

도시 속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은 과거에 역사적 사건이나 영웅들을 기념하는 교훈적, 상징적 성격에서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심미적 성격으로 발전해 왔다. 예술의 형식면에서도 현대에 와서는 전통적인 조각 작품들이 가졌던 구상성을 배제한 비구상성, 즉 추상성을 지닌 작품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작가의 개성적인 정신세계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공공미술이 내포한 미적인 가치는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외국의 경우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작품 ‘기울어진 호(Tilted Arc)’와 국내의 경우 프랑크 스텔라 (Frank Stella)의 작품 ‘아마벨(Amabel)’에 대한 철거 시비를 들 수 있다. 리처드 세라의 ‘기울어진 호’는 “미국남부, 맨하튼 도심에 위치한 나소가의 시작점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은 라파예트가와 센터가가 합류되는 곳으로 연방정부 건물, 미국 관세법



<그림 12> 리처드 세라, 기울어진 호, 1981



<그림 13> 프랑크 스틸라, 아마벨, 1997

원 등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그는 분수가 있었던 광장의 장식적 기능을 없애고 높이 3.6m, 길이 36m의 완만한 만곡의 코르텐 강철벽을 호(弧)모양으로 펼쳐 놓았다. ‘기울어진 호’는 정부에 의뢰한 합법적인 작품이었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미학이라는 이유로 1985년부터 논쟁거리가 되었고 1989년에 법원의 철거 명령으로 철거되는 수모를 당했다. ‘기울어진 호’의 철거 사건은 작가나 작품 중심이었던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의 중심을 관람자 우선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프랑크 스틸라의 ‘아마벨’은 무게 30ton, 높이 9m의 작품으로 1997년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 빌딩 앞에 설치되었다. 원 제목이 ‘꽃이 피는 구조물’이라는 이작품은 포스코(당시 포항제철)가 세계 철강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독일의 ‘캐피탈’ 지에 금세기 최고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던 미국의 프랑크 스틸라에게 주문 제작한 작품이다. ‘아마벨’이라는 제목은 19세 꽃다운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 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아마벨은 포스코 센터의 건축조형과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을 통해서 본 20세기 인간 문명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발의를 담은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그러나 대중으로부터 도대체 뭘지 모르겠다는 비판과 비행기 추락의 잔해처럼 흉측해 보인다는 이유로 철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다행히 철거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철거의 위기를 넘겼다.

앞의 두 경우를 보듯이 특정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은 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더라도 작가의 일방적인 작품세계가 담긴 난해한 작품이 아닌 주변 환경과 일정부분 조화되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정 공간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 내의 인간의 미적 욕구를 해소하고 문화생활의 한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장식적 특성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장식성 특성은 공공미술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공공미술품 또한 이와 같은 장식적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많았으며, 다음 페이지의 <표 8>은 장식적 특성을 충족하는 조형물을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표 8> 장식적 특성의 조형물

작가명	설치장소	작품명
박은옥	노형주공	풍요
김상현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섬(Island)
아다미 후랑코	제주현대미술관	사랑
김혜숙	제주지방 검찰청	섬(Island)
정관모	제주일보사	정주목의 모뉴멘탈리티
강시권	제주항 연안 여객터미널	꿈꾸는 바다
김방희	라마다 호텔	돌 - 印象
김보경	신제주 트란체	삶의 어울림
이왈중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제주 생활의 중도
손영수	제주대학병원	제주월야 외 2점
김순관	제주학생 문화원	탐라의 향연
백광익	정부종합청사	오름위에 부는 바람

장식성을 가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품에 대한 예술성, 접근성, 공간조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고 때로는 더불어 쉴 수 있는 공간적 배려가 충분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장식적 요건을 갖춘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림 14>의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작품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감상이 용이하며 작품이 가진 미적 경향도 주변 환경과 결합되어 편안한 인상을 주었으며, <그림 15>의 경우도 장식성 특성에 부합하는 작품이다.



<그림 14> 노형주공, 화강석, 520×529×420cm



<그림 15>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오석, 화강석, 브론즈, 345×135×285cm

<그림 16>의 경우는 연안 여객터미널에 위치하여 장식적 특성 뿐 아니라 해당 장소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 돌고래와 소년의 모습을 통해 낭만



<그림 16> 제주연안 여객 터미널, 브론즈, 화강석, 80×295×390cm(좌대포함)



<그림 17> 뜨란채, 화강석, 오석, 브론즈, 120×200×255cm

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그림 17>은 제주의 전통문인 정주목을 형상화 한 작품

으로 지역의 향토성이 느껴지는 친근한 작품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위에 열거한 경우처럼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다. 건축물에 대비하여 공공미술품이 설치될 때는 건축물의 크기와 작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건축물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왜소한 경우 공공미술품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18> 롯데마트, 브론즈, 80×120×360cm



<그림 22> 하와이 오피스텔, 오석, 196×140×220cm

<그림 18>, <그림 19>의 경우는 화단위에 설치되어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그 크기나 설치방식 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설치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없이 설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건물의 관리인조차 공공미술품인지 인식하지



<그림 20> 호텔 네이버후드, 현무암, 브론즈, 186×112×426cm



<그림 21> 현대오피스텔, 브론즈 100×50×85cm,

못하고 있었다.

<그림 20>의 경우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림 21>은 건축물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졌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신제주 지역의 민간 건물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몇몇 작품들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접근과 감상이 용이했지만 상당수의 작품들이 접근이 어렵고 심지어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듯 한 인상을 주는 작품도 있었다. 공간의 특성과 무관한 비계획적인 작품들은 미술장식법의 설치의무 때문에 마지못해 설치해 놓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장식적 특성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회화 및 평면작품이다. 현재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설치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이 일정금액의 미술작품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치양식에 대해서도 사진, 서예, 회화 등 실내전시만이 가능한 경우도 미술장식품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회화를 비롯한 평면작품은 조형물과는 달리 색채의 구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각적 집중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설치장소의 분위기를 예술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내작품인 경우 조명의 역할이 작품 감상의 중요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조명은 미술작품을 온화하게 드러내며 야외에서는 야간에도 조형물의 모습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 22>는 정부종합청사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의 혜택으로 여타의 작품들 보다는 감상이 용이했다. 제주의 자랑인



<그림 22> 정부종합청사, 아크릴릭,  
291×218cm,



<그림 23> 제주대학병원, 디자인 작품  
왼쪽부터 114×91, 89×68, 94×114cm

오름과 별의 움직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휴게실 안쪽 벽면에

전시되어 시각적 활력소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23>은 제주대학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특성상 실내조명이 양호한 상태였고 건축물 자체가 자연채광이 잘 되어 있어서 내왕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에 충분했다. 작품의 주제 또한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향토적인 이미지인 한라산, 초가집 등을 조형화 한 디자인 계열의 작품이다.

현장조사 결과 평면작품에 직접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등, 즉 형광등을 이용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공미술품에 의해 조성된 공간에 대한 평가는 작품과 공간의 관계, 작품과 이용자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건축물 중 많은 경우가 건축활용면적의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공공미술품에 의한 공간 조성에는 무관심 하였다. 이런 이유로 설치작품 중 상당수가 구석이나 실내 로비의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감상의 기회는 물론 장식성의 최소기능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림 24>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와 인물을 중심으로 세부묘사가 이루어



<그림 24> 제주대학병원, 수채화, 162×120cm      <그림 25> 제주대학병원, 판화, 162×130cm

진 작품으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복도 구석에 설치되어 장소를 더욱 칙칙하게 하였으며, <그림 25>의 경우는 병원의 구조물에 가려진 채로 방치되어 공공미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무색케 하였다.

장식성 특성의 공공미술품은 도시민들의 생활공간 내에 설치되어 미적향유의 기회제공과 함께, 미술이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설치공간과의 조화를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 3) 공공성

위의 항목에서 다룬 장식성은 작품이 공간의 일부분에 설치되어 미적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공성에서의 공공미술 작품은 더 이상 추상화되고 개념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러 쉬며 세상을 성찰하고 탐험하는 ‘장소로서의 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디자인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동체 미술’의 성격을 가진다.

“공동체 미술은 70년대 미국 빈민가에서 일어난 미술운동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화랑이나 무대라는 상황에서 벗어나 예술행위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군의 예술가들의 활동을 의미하는 60년대의 반문화로부터 발전되어 공식제도화 되었다.”<sup>25)</sup> 수잔 레이시는 이를 ‘뉴 장르 공공미술’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예술가들은 전문가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거리의 무대, 벽화, 교통수단, 놀이구조 등을 통한 공동체 영역 내의 작품 결과에 주목하는데 종종 퍼포먼스적 경향이거나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기도 한다. 공동체 미술은 관객들과의 일차적인 만남을 통해 거리나 공공건물과 같은 환경속에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완성시키는데, 그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을 없애고 함께 공동체 벽화운동에 벽화를 매개로 하여 낙후된 지역을 밝게 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였다. “공동체 미술은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거리의 열린 공간 속으로 진입하며, 기존의 공공미술이 지닌 인간의 생활환경을 위한 소극적 접근이나 개입을 넘어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공동체 미술은 도시공간을 물리적 공간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소통의 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26)</sup>

이처럼 공공미술이 성장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가 있는 장소(1991)’와 ‘행동하는 문화(1993)’라는 대규모의 미술 프로젝트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

메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sup>27)</sup>이 기획·주도한 전시이며, 첫 번째로 살

25) 문정언 (2005),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미술 연구”, 석사학위논문, p.20.

26) Malcolm Miles, 박삼철 역(2000),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p.30.

27) 메리 제인 제이콥(Mary Jane Jacob) : 시카고 미술대학 교수. 공공미술이 지역 공동체의 성격·환경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 ‘과거가 있는 장소(1991)’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미술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전시되는 장소의 역사와 문화에 긴밀하게 결합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보여준다. 작가들은 1년 전부터 이곳을 방문하여 성(城), 수도원, 공장, 창고, 병원, 감옥 등 다양한 작업지를 직접 고르고 지역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오늘날의 ‘찰스턴(Charleston)’<sup>28)</sup>이 있기까지 누적되어 왔던 풍부한 역사적 전통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26> 앤 해밀턴의 무제 설치 퍼포먼스, Pinckney Street, Charleston, 1991



<그림 27> 안토니 고펠리의 찰스턴시의 구교도소를 위한 조각, 1991

<그림 26>은 앤 해밀턴(Ann Hamilton)이 오래된 차고를 작업지로 삼고, 그녀가 계속 탐구해오던 ‘미국인의 노동사’ 라는 주제로 작업했다. 약 6.3톤 무게의 파란색 남성 작업셔츠를 여성들이 깔끔하게 세탁하여 작가의 감독 하에 쌓아 놓았으며, 해밀턴은 그 앞에 놓인 책상에 앉아 조용히 오래된 책의 내용을 지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일상적 노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이러한 작업과정은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낸다. 또한 노동자 계층의 역사가 다른 역사들의 자리를 위해 종종 삭제되어야 하는 현실을 암시했다.

<그림 27>의 안토니 고펠리 (Antony Gormley)의 설치 작업은 찰스턴의 옛 감옥으로 사용된 건물에서 어둡고 습한 건물의 가구와 장식을 제거해, 총 7개의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안토니 고펠리는 교수형이 집행되었던 곳에 작가 특유의 납 캐스트 조각상들을 머리를 없앤 채로 천정에 매달아 둠으로써 교수형을 연상시켰다. 그는 어두운 교도소 방을 밝고 아름다운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

28) 찰스턴은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초기 영국의 식민지였고,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부유한 항구이면서 1861년 남북전쟁이 촉발된 비극적 장소이기도 했다.

써 사람들이 그곳을 둘러보고 과거를 오늘의 역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두 번째의 사례, ‘행동하는 문화(1993)’는 맬콤 마일스, 수잔 레이시를 비롯한 공공미술가들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던 전시이다. ‘시카고 조각’<sup>29)</sup>의 지원을 받아 선보인 공동체와 작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또 많은 작업들이 최종 오브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참가자와 작가 사이의 연계형태를 떠나는 점에서 신선함을 주었다. 제이콥은 ‘시카고 조각’의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이전의 공공미술 모델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했다. 그녀는 1991년 ‘과거가 있는 장소’ 전시와 마찬가지로 시카고 시 전체를 그 무대로 삼고, 다양한 공동체 주민들이 작품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년에 걸친 준비 및 전시기간 동안 고등학생, 공동주택거주자, 노동조합원, 여성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와 작가들로 구성된 8개 참가그룹은 각각의 공동체와 관련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오픈에 앞서 1992년 12월 심포지엄을 열어 전시에 중요시 하는 개념들을 구체화 시켰다.”<sup>30)</sup>

<그림 28>은 부부작가인 에릭슨(Kate Ericson)과 멜 지글러(Mel Zeiglar)



<그림 28> 케이트 에릭슨, 멜 지글러, 공동주택단지 거주민 <토지 수용권>, 1993

가 정부보조를 받는 공동주택 단지 거주민과 함께 선보인 <토지 수용권>이라는 작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이다. 페인트공 출신인 이들 부부는 공동주택의 주민대표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주거환경에 얽힌 역사, 경제, 법률, 인종의 문제, 그 공동체가 직면한 환경과 같은 문제들을 토론

하고 자신들의 작업에 반영했다. 작가 혼자 작품을 제작 하여 설치하던 수동적

29) ‘시카고 조각’은 1983년 창립되어 초기에는 매년 조각전시를 선보였으나 중간에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30) 이지희(2009),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담론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 대학원, p.91.

인 방법과는 달리 작가와 공동체의 협업을 중시했던 ‘행동하는 문화’는 작품을 접하는 주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공동체 미술의 성공적인 출발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동체 미술로의 이행현상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길섶로 꾸미기’ 같은 공모사업이 대표적이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미술의 활성화, 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 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되었다.

제주 지역에서도 공공기관과 미술단체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소외된 지역을 문화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도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제주지역에 지역공동체와 교감하는 방식의 공공미술이 등장한 것은 2006년쯤이다. “전국 문화의 달 사업의 하나로 제주시 도남 1차 수선화 아파트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만들기 사업’이 펼쳐졌다. 이듬해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뽑힌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서귀포시 천지동에서는 문화관광부 ‘아트 인 시티 사업’으로 ‘겉매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가며 갖가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화작업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2007년부터 2011까지 5년 사업으로 제주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나섰다”<sup>31)</sup> 제주 민예총이 사업 주관을 맡아 제주1차 수선화 아파트, 제주시 건입동



<그림 29> 1차 수선화아파트



<그림 30> 제주시 건입동



<그림 31> 제주 남초등학교

주민 자치치센터 부근, 제주시 남초등학교, 서귀포 신시가지 문화공원 3곳에서 시범사업을 펼쳤다. 공공미술 작품들은 벽화, 타일을 쪼개어 장식한 작품, 입체 조형물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설치되었다.

31) 공공미술추진단(2009), 「제주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프로젝트」, p.130.

다음 <표 9>는 제주시 지역(서귀포 지역 일부포함)에 시설된 주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주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설치현황

장 소	프로젝트 명	참여단체 및 작가	주 최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추진단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 골목	기억의정원 - 두맹이 골목	(사)탐라 미술인협회 공공미술 연구회	제주 특별 자치도
탐 동	탐동 테마관광거리 조성공사	남도 종합건설 전시나라	제주시
서귀포 지역	길섶로 꾸미기사업	고순철, 윤덕현 등(Jeju Public Art)	문화체육 관광부
명도암	마을미술 프로젝트	김연실, 홍진숙, 김재경 조윤득, 이원우 등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 남초등학교	제주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범사업	제주 민예총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주민 자치센터 부근	제주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범사업	제주 민예총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한라빌라, 한라아파트, 대오아파트 일대	ART놀팡 - 씬팡	김해곤, 고순철, 오민호, 양원석	제주 특별 자치도

<표 9>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여러 곳에 시설되어 있지만 그 규모나 설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공공미술로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대규모의 면적에 시설된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 골목, 탑동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 보았다.

사례 1. 제주시외버스 터미널

프로젝트 명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기간	2009년 10월~2010년 1월
총 사업비	3억원
참여단체 및 작가	단체- 공공미술 사업추진단 : 현경철(단장), 김석범, 김석윤, 부재호, 홍원석, 강태봉, 김연실 작가 : 김연숙(팀장), 강태봉, 이원우, 김성은, 강문석, 주하영, 부지현, 신상협, 강수정, 강은정
주 최	제주 특별자치도
후 원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대상지의 소유주는 (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다. 일일 교통량은 제주시를 거점으로 동쪽방면 46회, 서쪽방면 46회, 5.16도로 38회, 중문 고속화도로 74회, 동부관광도로(모슬포) 51회, 남조로 44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객의 시간대별 이용현황은 주중에는 등하교를 위한 학생층이 주 이용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에 노약자나 일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sup>32)</sup>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추진단은 낙후된 터미널 주변의 환경정비 효과를 유발하고, 공공성을 지닌 다중 이용시설로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 제주시 동서방향에 위치하여 도로교통 이용객의 호기심자극, 주 이용고객의 측면에서 제주시 외곽지

32) 공공미술추진단(2009),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프로젝트」, p.90.

역으로 이동하는 고객의 대중교통 거점으로서 전 도적으로 홍보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추진단은 도심지역에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모티브로 이 시대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문화적 상징을 찾아 공공미술이라는 매개체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장먼저 터미널 건물 2층 앞면 전체외관을 ‘길’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시각적 집중을 유도하는 대담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길’은 철골 구조물로 덧씌우고 밝은 연녹색으로 채색하여 이전에 검은색으로 적어 놓았던 ‘시외버스공용자동차정류장’이라는 간판을 없애고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그림 32> ‘길’을 형상화 한 터미널 전경



<그림 33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후경

보였다. 주변에서 이 독특한 외관을 막을 막한 요소를 지닌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입구 잉여면적에 설치한 조형물, ‘할망(할머니)과 손주(손자)’는 할머니와 손자가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이어주는 정을 표현하였으며 다가올 버스(희망)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주변에 놓여 있는 보따리들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수용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삶의 정감과 애환을 추억할 수 있게 하며 주변에 현무암 벤치를 마련하여 쉼터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하였다. “건물 오른쪽에 우뚝 서있는 ‘길에서 만나다’ 라는 제목의 대형 조형물은 넓게는 ‘제주도’, 좁게는 ‘터미널’ 과 연결된 길에서 만난 사람, 사물, 풍경사진을 흑백으로 모자이크해 넣었다. ‘할망과 손주’가 ‘과거 향수 좇음’을 대변한다고 하면 이 작품은 ‘근과거 향수좇음’ 이며 현재성까지 내포한 작품으로 보인다. 사진속 이미지들은 오늘과 가까운 과거인데다 이를 보는



<그림 34> 조형물, 할망과 손주



<그림 35> 조형물, 길에서만나다

감상객은 바로 지금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길을 떠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sup>33)</sup> 그리고 밤에는 조명을 하여 홀로 우뚝 선 나무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였다. 즉 하나의 벽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대형나무 이미지를 동시에 조형화하여 낮과 밤의 형상이 달라지게 된다. 터미널 내부도 외부 하단을 둘러놓은 것과 비슷한



<그림 36> 시외버스 터미널 내부



<그림 37> 터미널 내부의 소형 조형물

느낌의 목재로 여러 곳을 마감 처리하여 통일성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장식품들이 설치되었다. 중앙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마주치는 나무 형상의 이미지가 있는 벽이 설치되었고, 벽 한켠에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작은 인형으로 형상화하여 오가는 사람들에게 찾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이 밖에도 터미널 내외의 상가간판을 디자인하여 정비하는 등 여러 곳에 손을 대어 미감을 확대시키려 한 흔적이 발견된다. 다만 낮은 바닥과 승차장의

33) 오마이 뉴스, “터미널에게 길을 묻다.” : 2010년, 2월, 8일.

모습 등은 특별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 영역을 건축에까지 내딛지 못한 공공미술의 기술적 한계로 보인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이루어낸 이 의미 있는 작업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이 가진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사례 2. 제주도 일도2동 두맹이 골목

프로젝트 명	일도2동 골목길 공공미술프로젝트 ‘기억의정원-두맹이 골목’
사업 대상지	제주시 일도2동 구중로 23번지~두문로 38번지 일대의 골목길 지역
사업 기간	2008년 9월~2008년 12월
총 사업비	6천만원
참여단체 및 작가	단체 : 탐라미술인협회 공공미술연구회 제작팀 (S&S ARTWORK) 작가 : 박경훈, 오석훈, 김영훈, 고경화, 한승엽 등
협력 단체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 최	제주 특별자치도

이 사업은 제주 민예총이 주관한 ‘2008년 Artscape JEJU 공공미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작한 것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상지인 “제주시 일도2동 두맹이 골목은 구 제주시권 에서도 가장 오래된 구역으로, 소방도로도 없이 낙후된 골목이었다. 가옥들은 30~40년이 지난 슬레이트조가 대부분이며 골목은 예전 구도로 위에 아스콘 포장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런 환경은 이곳 주민들에게 ‘살기 좋고 정겨운 우리골목’ 이라는 이미지 보다는 개발에 뒤처지고 퇴락한 낡은 동네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sup>34)</sup> 일도2동 두맹이 골목은 현재 일도2동 구중로와 두문로 사이

에 걸쳐 있는 총연장 319m에 이르는 거미줄 같은 골목이다. 공공미술연구회는 공공미술을 통한 두맹이 골목의 커뮤니티 창출, 공공미술을 통한 스트리트퍼니처 개선,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공공미술의 실현 등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회는 가장먼저 두맹이 골목 전체를 ‘커뮤니티 공간, 오래된 장소, 녹색공간’ 등의 세 가지 기본 구상안을 세워놓고 작업을 진행했다.”<sup>35)</sup>

첫째, ‘커뮤니티 공간’인 두맹이 쉼광(휴게소) 조성사업은 폐초가를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철거한 후 폐기물 처리 하였으며, 남아있는 석재는 재활용하여 쉼광공원의 터다지기용 석재로 활용했다. 쉼광은 100m<sup>2</sup> 내외의 넓지 않은 공간의 중심부에 설치하였으며, 벽에는 두맹이 골목의 소개와 아톰, 홍길동, 코난, 돌리, 하니, 머털도사, 마징가제트 등 어린 시절 즐겨봤던 만화(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벽화로 제작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연령층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친근



<그림 38> 두맹이 쉼광



<그림 39> 두맹이 쉼광 벽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둘째, ‘오래된 장소’를 기본 구상으로 한 공간은 “골목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앨범에서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수집, 이를 사실적인 이미지의 벽화로 제작했다. 사진의 이미지들은 어린이들의 놀이인 말뚝박기, 기념사진 같은 것들이다. 주택담벽의 벽화제작은 제작팀과 주민들 사이에 이미지에 대한 인식차가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다.”<sup>36)</sup> 벽화의 색조는 따뜻한 색채와 흑백사진을 연상시키는 단색조가 주를 이루며 좁은 골목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의 벽면이

34) 공공미술연구회(2009), 「기억의 정원~두맹이 골목」, p.60.

35) 전계서(2009), p.31.

36) 공공미술 연구회(2009), 「기억의 정원-두맹이 골목」, p.36.



<그림 40> 오래된 장소를 주제로 한 벽화 I



<그림 41> 오래된 장소를 주제로 한 벽화 II

나 담장을 빼곡하게 메꾸고 있었다.

셋째, ‘녹색정원’을 주제로 하는 공간이다. 골목길 곳곳의 자투리 공간과 벽을



<그림 42> 녹색공간을 주제로 한 벽화 I



<그림 43> 녹색공간을 주제로한 벽화 II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꽃담을 조성하여 골목길 전체가 정원처럼 느껴 지도록 하였다.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이용하여 꽃이나 식물의 잎 등의 형태를 부조한 후 채색하는 방식이며, 나비 등의 소형조형물을 오브제로 설치하여 입체적인 시도를 한 곳도 있었다. “탐라미술인 협회 공공미술연구회는 구상안에 대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사전, 사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sup>37)</sup> 두멍이 골목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퇴락한 구도심지의 공간가치의 재발견과 의미의 실현 등의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벽화위주의 평면적인 작업이 주가 되다 보니 주택벽면의 건축적 성격을 활성화 하는 데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37) 공공미술 연구회(2009), 「기억의 정원-두멍이 골목」, p.44.

두맹이 골목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09년 4천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받아 2단계 사업(700m구간)이 진행·완결 되었으며, 저예산으로 공공성을 추구한 사례에 속한다. 제작팀은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골목내 46가구를 회원으로 하는 ‘두맹이 골목 공공미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작품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제작팀-동사무소-골목 주민간의 연락 체계를 갖추으로써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 사례 3. 탐동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탐동지역은 과거 매립되기 전에는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자 시민의 향수와 추억을 간직하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탐동 테마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광장과 체육 시설 일부를 제외하곤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아



<그림 44> 탐동 전경



<그림 48> 부조 조형물

스팔트로만 포장된 채 존치되어 있던 탐동광장은 가장 바다에 인접하여 있고 전면 개방된 공간으로 청소년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부족한 면이 있는 바다로의 조망 권과 친수성 회복, 주제가 있는 광장 조성 등을 통하여 청소년과 시민,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제주시가 추진한 사업으로 작가 주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을 위한 문화공간의 기능과 휴식의 기능이 사업의 주요목표인 점을 감안할 때 공동체 미술의 기본적 성격에는 부합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포함 시켰다.

사업 대상지의 규모나 특수성으로 인해 바다포장공사 부분은 전문 건설업체가 담

당하였으며 조형물 시설 또한 전문제작업체가 참여하여 대규모의 면적에 다양한 형태의 입체조형물과 부조작품이 설치되었다.

<표 10> 탐동 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현황

프로젝트 명	탐동 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사업 대상지	제주시 탐동
사업 기간	2001년 8월 10일~2002년 4월 1일
총 사업비	23억원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동광장 바닥포장 : 고무블럭포장 4,287.6m<sup>2</sup>, 칼라무늬 콘크리트, 2,868.0m<sup>2</sup>, 화강석 3,462m<sup>2</sup></li> <li>- 테마거리 설치공사 : 목재 옥외테크 1,259m</li> <li>- 방파제 벽면구조 조형물 설치(L=1,259m, H=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형물 제작설치 : 전시나라</li> <li>▶재질 : 드라이비트, 투명우레탄, 등의 혼합재료</li> </ul> </li> <li>- 광장내 자전거보관소 1개소, 휴게 그늘막 3개소</li> </ul>
참여 기업	(주)남도종합건설, 전시나라
주 최	제주시

자료: 제주시청 도시경관과, 탐동광장 및 테마거리 조성공사 현황

주요 사업방향은 운동공간, 만남의 공간, 이벤트 개최공간 등 3개 부분으로 구분해 광장 및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운동공간’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2개소,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 3개소를 시설하였으며 광장 바닥은 고무블럭과 칼라콘크리트로 전면 재포장 하였고,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벤트 개최공간은 동쪽에, 만남의 공간은 중앙부분에 시설되었다.

조형물은 바다 조망권 확보와 아름다운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파도 방지벽(이하 방파제)위에 조성되었으며, 해변과 잘 어울리게 물 고기떼, 해너부조, 돛, 모래사장, 돌고래, 문어, 한치, 어패류 등을 주제로 하였고 2m 크기의 입체조형물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유도했다. 부조 조형물은 특수 세라믹과 FRP 등으로 만든 뒤 투명 우레탄 등으로 마감처리 하였다.



<그림 49> 해너 조형물



<그림 50> 돌고래 조형물

‘탐동 테마거리 조성공사’는 방파제라는 특수한 목적의 콘크리트 시설물에 미적 장식을 하고 주변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였지만, 월파로 인한 피해가 연중행사처럼 비일비재한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조형물이 설치된 전체구간은 재료가 가지는 한계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시청에서는 도시경관과의 감독 하에 2007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조형물 전체에 재도색 작업을 실시했으며, 매년 1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책정해 놓고 있다.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 했을때도 추가 시설 및 손상된 방파제 벽에 대한 보수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림 51> 보수작업 중인 구간



<그림 52> 보수작업 중인 파손된 구간

이처럼 공공미술, 혹은 공공공간이 도시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작품설치로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뒤따라야만 한다. 탐동 테마거리는 꾸준한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공공성을 표방한 휴게시설 및 문화공간의 확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역할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방법적 모색이 끊임없이 강구 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공동체 미술 또한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도시공간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변화해 왔다.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더 이상 양적인 확대만이 아닌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위주로 한 공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환경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도처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과 확충의 필요성은 다른 도시보다 한층 더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공공미술에 대한 일반적 경향과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공동체 미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국내외 관련제도, 시행사례 등을 통해서 ‘공공미술’이라는 어휘가 다양한 경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공공미술은 도시 내의 예술적인 조형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웅이나 사건 등을 주제로 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적기능과 함께 공공성의 기능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의 가치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일상의 환경요소로서 시각적, 경험적 체험을 통해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공공미술은 초기 개인주의적 작품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공적기능의 후퇴, 작품의 질적 저하, 특정 소수 작가에게 편중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러한 작가 주의적 공공미술품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미적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건축물과의 조화에도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현대의 공공미술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하며 아울러 문화공간으로서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능과 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가 공공미술 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의 제도에 설치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과 분류가 보완되어야 한다.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공간적인 배려가 부족한 작품이 의외로 많았으며, 회화작품인 경우 조명 설치에 관한 세부 항목의 추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

둘째, 공공미술의 기본적 가치로 꼽을 수 있는 단순한 미적기능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희적 가치가 전제된 이후,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지역민과 유대의식이 생기게 된다. 공공미술품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만을 느끼기 위한 관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간의 이용자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공간 내에서 활동하는 도시인들의 삶의 형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의 일부분으로 존재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에, 각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공공미술 기구 및 중개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공공미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을 이루는 각 요소들 공간, 시민, 작가와 시행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킹과 조화가 필수적이다. '제주시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제주도청과 세부사항을 긴밀하게 협의 하였으며, 설치공간에 위치한 상인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작가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문을 얻었고, 작업 종결 후에는 언론을 통한 홍보와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책자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미술의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공공미술은 현대도시의 삶 속에 녹아들어 발전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공공미술추진단,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미술 프로젝트」, 2009.
-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정책백서」, 2007
-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2005.
- 이규호, 「현대철학의 전망」, 범문사, 196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평화기념관」, 2008.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관광, 스포츠 현황」, 2009.
- 전혜숙, 「리차드 세라의 공공조각, 장소-특수성」(site-specificity), 서울, 현대미술사 연구, 2000.
- 최태만, 「공공성에 바탕을 둔 환경조각」, 서울, 문화도시 문화복지, 1998.
- 한라대학교 출판부, 「제주 한라대학교 타임캡슐」, 1999.
- Malcom Miles 저, 박삼철 역, 「미술, 공간, 도시」, 학고재, 2000.

### <논문>

- 김민영, 「공공미술에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대학원, 2004.
- 문정연,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미술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대학원, 2005.
- 이윤주, 「환경미술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대학원, 1992.
- 이지희,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담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대학원, 2005.
- 조대현, 「도시와 환경조각의 조형적 관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 교육대학원, 2000.

### <정기 간행물>

- 김성원 편, 「프랑스의 공공미술 지원책」, 가나아트, 1997, 9.
- 김영호 편, 「도시공간을 위한 환경미술을 찾아서」, 가나아트, 1997, 9.
- 안인기 편, 「환경조각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미술, 1996, 7.

<연보>

제주시, 제주시 통계연보(200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본부, 2009연보(2009).

<신간기사>

오마이 뉴스, “터미널에게 길을 묻다”, 2010년 2월 8일.



**<Abstract>**

**Study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Art in Jeju**

**-a focus on Jeju-si-**

**Myeong-cheol Lee**

**Fine Art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Western painting)**

**Advisory Professor Sung-jin Park**

Public art plays a bridging role in connecting art and the daily lives of people, which could help secure publicity as well as have not an insignificant effect on how much ordinary people are aware of art. Because art can permeate more positively in visual urban environment than other genres or scopes in society and then enrich the relations among art, city and citizens, the constructive discussions on public art should not be delayed. The enactment of the Artistic Decoration of Building Program—a ground of public art installation—can be said ‘the first step’ to settle public art in Korea. Although architecture with artistic decoration—belonging to the field of fine arts—is based on publicity, there is a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 rank and file so that it cannot to be handled in Artistic Decoration of Building Program and shows different tendency from each local society. Public art in Jeju shows itself as no more than a passive phenomenon to merely reflect personality and preference of artists.

Even in Jeju, a plethora of wall paintings and statues are manufactured and installed, but it is not to be deemed that all of which are closely associated

with subject buildings, surroundings and citizens. In particular, wall paintings have long ago degenerated into an attempt to beautify the environment rather than to promote public art; rather, a non-professional, careless constitution of so-called art imposes on the audience visual fatigue. From this perception, the study focuses on transforming the largest urban area of the island a desirable aesthetic environment and seeking means to develop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the public.

The author studies the changing procedure and relevant institutions of public art at home and abroad on a comprehensive basis and reviews relevant literature of related agencies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art installation as a basic material, and accordingly, conducts on-the-spot investigation focusing on Jeju-si (as well as part of Seogwipo-si). The classification of materials collected also helps the author to seize positive cases and isolate problems pertaining to local public art, toward suggested improvements.

The author hopes that the study will become a reference work to encourage diverse debate and which will engender a social dynamic for public art in the development of Jeju's future.